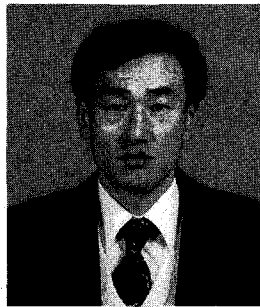


우유보도의 허(虛)와 실(實)



이 건 용

건정목장,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봉상리 241

지난 10월 22일 MBC TV에서 보도한 '고름우유'라는 들어보지도 못하던 흉칙한 이름을 붙여 그 내용을 확대 과장보도한 것에 대하여 이땅에서 젖소와 함께 생활하며 그들의 신선한 우유를 생산하고 있는 낙농가의 한사람으로서 서글픈 마음을 금할길 없다.

나 자신이 한사람의 낙농가이며 동시에 소비자인 입장에서 객관적인 생각을 할 때 이러한 내용을 보도한 방송사 기자들만의 무지의소치로 돌려버리기에는 너무나 충격적이고 황당한 노릇이 아닌가 생각한다. 젖소와 더불어 낙농업과 인연을 맺은 이후로 지금까지 나는 우리나라의 국민건강에 작은 힘이나마 일조를 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며 일년 삼백예순다섯 날을 하루같이 땀흘리며 그야말로 목장의 신선한 우유를 생산해 왔다.

원유가격 차등제 실시 전에 비교하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생산되고 있는 원유의 품질은 정말 선진국의 원

유품질수준에 버금갈 수 있을 정도로 위생면이나 유질면에서 우수한 것이 사실이다.

실로 이러한 놀라운 발전은 우유를 생산하는 현장에서 땀흘리고 애를 쓰는 낙농가들이 신선하고 품질 좋은 우유를 우리 국민들에게 공급하여야겠다는 사명감이 기본적으로 큰 몫을 했기 때문이라고 자부한다.

또한 우유의 품질에 관한 문제는 잠시 접어두고 요즘 우리의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기성세대와 비교하면 우선 골격부터가 다르게 느껴진다. 부모님의 양쪽 모두가 왜소하더라도 그 자식들을 불러치면 역시 물질적으로 풍부하며 잘먹고 좋은 영양을 섭취한 우리의 아이들이 성장도 빠르고 두뇌도 잘 발달되어 장차 이나라의 주인이 될 것을 생각해 볼 때 문득 떠오르는 말은 영국의 처칠경이 "한나라에 있어서 가장 안전하고 귀중한 투자는 어린이들에게 우유를 먹이는 것이다"라고 강조함이었다.

인간에게 있어서 우유는 없어서는 아니될 귀중한 식품중의 하나 인 것을 단적으로 표현하는 말인 것이다.

나는 매일 우유를 먹고있다. 그것도 우리목장의 젖소들에게서 짜낸 우유를 말이다. 젖소와 더불어 낙농업을 시작한 이후로 계속해서 현재까지 신성하고 고귀한 선물을 받아먹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단 한번도 내가 먹고 있는 우유가 더럽다고 느껴본 일은 없다. 왜냐하면 나의 젖소들로 부터 내가 직접 짜낸 우유라서기 보다 그것은 자연이 인간에게 베풀어 주신 그 무엇보다도 고귀한 선물이라는 생각 때문이리라.

또한 이 우유를 나 자신 뿐만이 아니라 내 아내와 아이들도 "고름우유" 방송이 보도된 다음 온통 떠들썩하게 만나는 이들과다 우유이야기들을 하고 있지만 전혀 개의치 않고 잘도 먹고 있다. 어찌면 사건이 터지기 이전보다도 더욱 더 잘 먹는 것 같다. 아마도 이러한 현상은 "고름우유"의 여파로 우유소비가 줄고 있다는 보도를 듣고는 제편에는 나름대로 우유소비에 앞장서 보겠다는 생각에서 일지도 모르겠다.

이토록 시도 때도 없이 들며날며 마셔대는 우유 덕분에 우리가족은 늘 건강하다. 집밖에서 놀던 아이가 땀이 나고 목이 마를 때 어느 음료수보다 제일 먼저 찾는 것도 바로 우유고 또한 우리 두 부부가 밭에서 땀 흘려 일하면서 잠시 휴식을 취하는 동안에 먹는 것이 또한 우유인 것이다.

이처럼 우유는 천연의 청량제이며 동시에 완전한 영양식품으로서 우리 모두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낙농선진국인 덴마크에서 그들과 함께 지내며 경험했던 이야기를 잠시 소개하고자 한다.

세상은 아직 잠들어 있는 적막속의 새벽에 농장주 "A"씨와 함께 아침 착유를 끝내고 착유실을 나서기 전에 우유냉각 탱크 뚜껑을 열고는 미리 준비한 양동이에다 우유를 퍼서 하나 가득 담아 집으로 들고 들어와 식탁에 놓기 전에 우유 주전자에 덜어서 식구들 각자의 우유잔에 가득부어 준다. 또한 아침식사에는 약간의 보리빵과 달걀을 곁들인다. 이것이 이들의 아침 식사 인 것이다. 물론 냉각기에서 퍼온 원유를 끓이고

소독하는 일은 절대로 없었다. 위생적인 착유과정을 거치고 잘 여과된 좋은 우유를 무슨 끓이고 소독을 해야 할 이유가 있느냐고 오히려 반문을 하는 것이다. 더욱 놀라운 이야기는 "A"씨네 농가뿐만이 아니고 모든 농가에서 자기들의 가족이 먹고 마시는 우유는 모두 이런식으로 전혀 끓이지 않고 우유냉각기에서 직접 퍼와서 바로 식탁에 올려놓고 온가족이 함께 마시고 있다는 설명이었다. 이렇듯이 내가 짜낸 우유를 내가 스스로 자신있게 바로 먹을 수 있을 정도로 깨끗하고 위생적인 우유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사실 우리나라의 경우도 과거 몇년전의 원유품질에 비하여 크나큰 발전과 변화를 이룩해 왔다. 이것은 실로 원유생산이 주체가 되는 낙농가들의 우리 국민들이 안전하고 품질좋은 우유를 만들어 제공하겠다는 결의가 없이는 또한 그러한 노력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원유에 대한 검사제도가 현재 국제수준 이상의 현실하에서 나아가서는 국제간의 우유경쟁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 낙농가 모두가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차제에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고름우유"라고 하는 악선전은 분명히 그 이름조차도 사라져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건강한 젖소의 우유에서도 1ml당 25만개 정도의 체세포는 항상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건강한 젖소로 부터 짜낸 우유속의 체세포는 생리적인 현상으로 정상적인 숫자를 초과하지 않는 한 지극히 자연스러운 생체의 한 기능적인 부분으로 보아져야 함이 옳다고 생각한다.

더욱이 지금의 원유검사제도에서도 이해 할 수 있듯이 만일 목장에서 극히 소량의 유방염 원유를 아깝다고 버리지 않는 경우에 그 원유로인하여 낙농가에게 돌아오는 불이익은 상당액이 되는 바 이러한 어리석음을 범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조그마한 이득을 얻으려다 오히려 몇배나 더 큰 손해를 당하게 된다는 이야기다. 이렇게 우리나라 낙농가의 모두가 낙농선진국으로 향한 그들의 몸부림은 나날이 거세지고 있다.

마치 연어가 산란을 위하여 험한 급류를 헤쳐 나가듯이.....